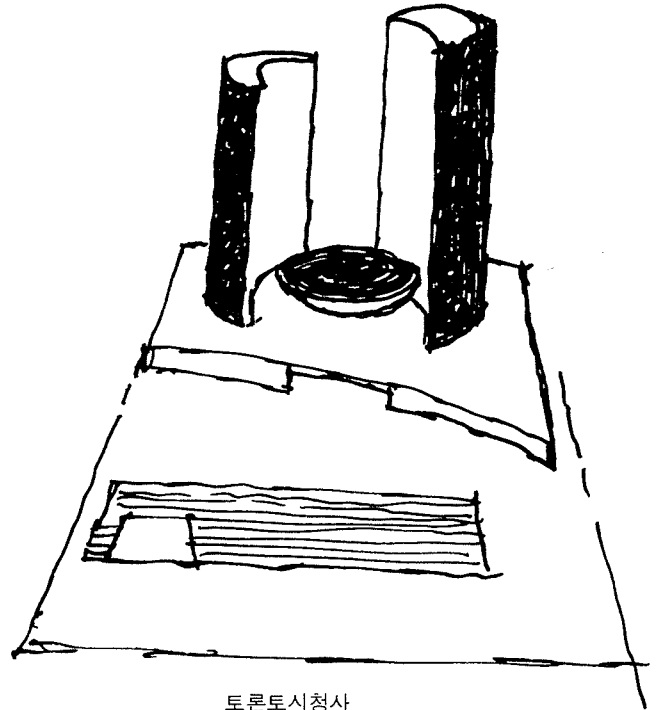


# 建築이라는 藝術 (Ⅲ)

■ Theme Essay  
Truth in Architectual (Ⅲ)  
by An, Byung-Ui



토론토시청사

「住宅은 살기 위한 器械이다。」  
「宇宙는 無秩序하다。」  
인간은 幾何學 創造했다.  
기하학은 秩序이다.  
인간은 秩序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精神에 깊은 感動을 주는  
藝術作品은 기하학을 確實히  
느낄 수 있는 作品이다。」  
「建築은 빛속에 演出하는  
거대한 造形의 藝術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의 본질을 그 内部空間에서 찾으려는 系列의 작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外部空間, 말하자면 建物の 造形에 뜻을 둔 作家들이 있다. 「르 코르뷔지에」는 그 대표적인 작가겠다. 우리들이 어떤 作品을 鑑賞할 때, 그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그 건축을 構想했는가, 또는 그 작가가 表現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 작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나의 실력이 그 작가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로, 사리넨」처럼 건축가란 작품이면 그만이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던 작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행히도 「르 코르뷔지에」는 많은 저서가 있어 그의 사상과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 몇개를 간추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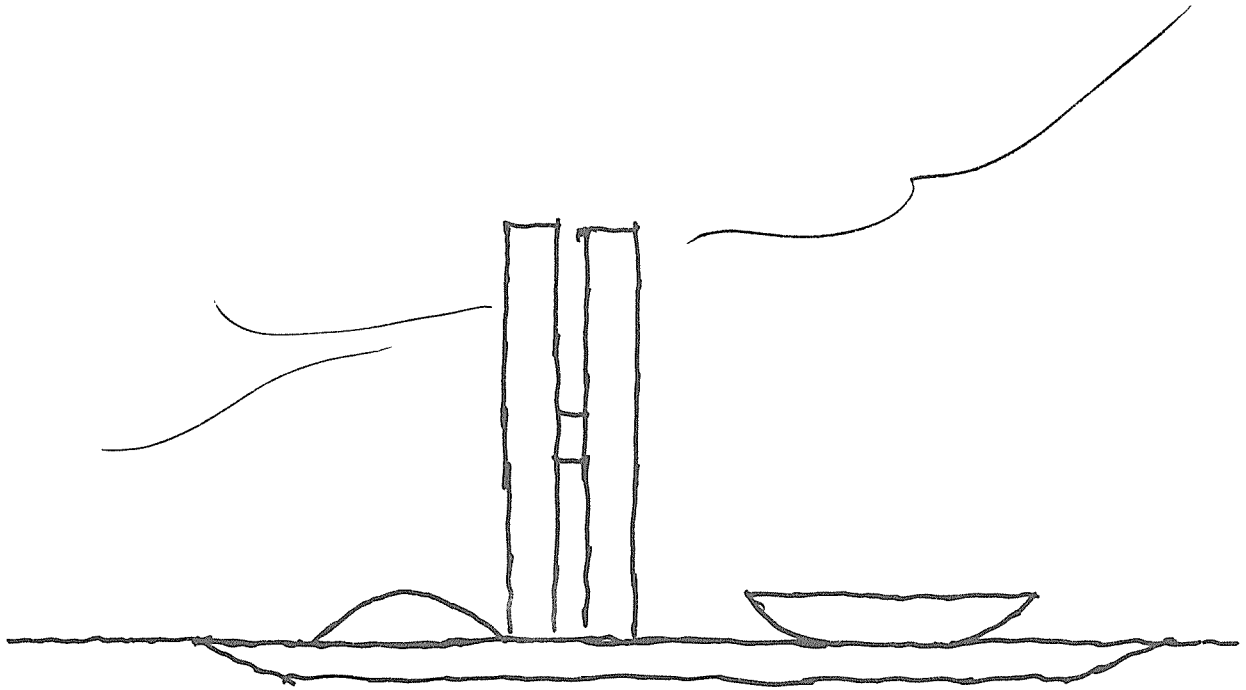
「住宅은 살기 위한 器械이다。」  
「宇宙는 無秩序하다. 인간은 幾何學을 創造했다. 기하학은 秩序이다. 인간은 秩序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精神에 깊은 感動을 주는 藝術作品은 기하학을 確實히 느낄 수 있는 作品이다。」

「建築은 빛속에 演出하는 거대한 造形의 藝術이다。」  
그는 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합리적인 기능이 주는 형태의 아름다움을 역설했다.

다른 작가는 둘째치고 적어도 「르 코르뷔지에」는 작품구상의 첫 단계가 평면의 기능이 아니라 외부공간의 조형이었다는 것은 그의 많은 스케치가 거의 모두 조형이라는 것을

安秉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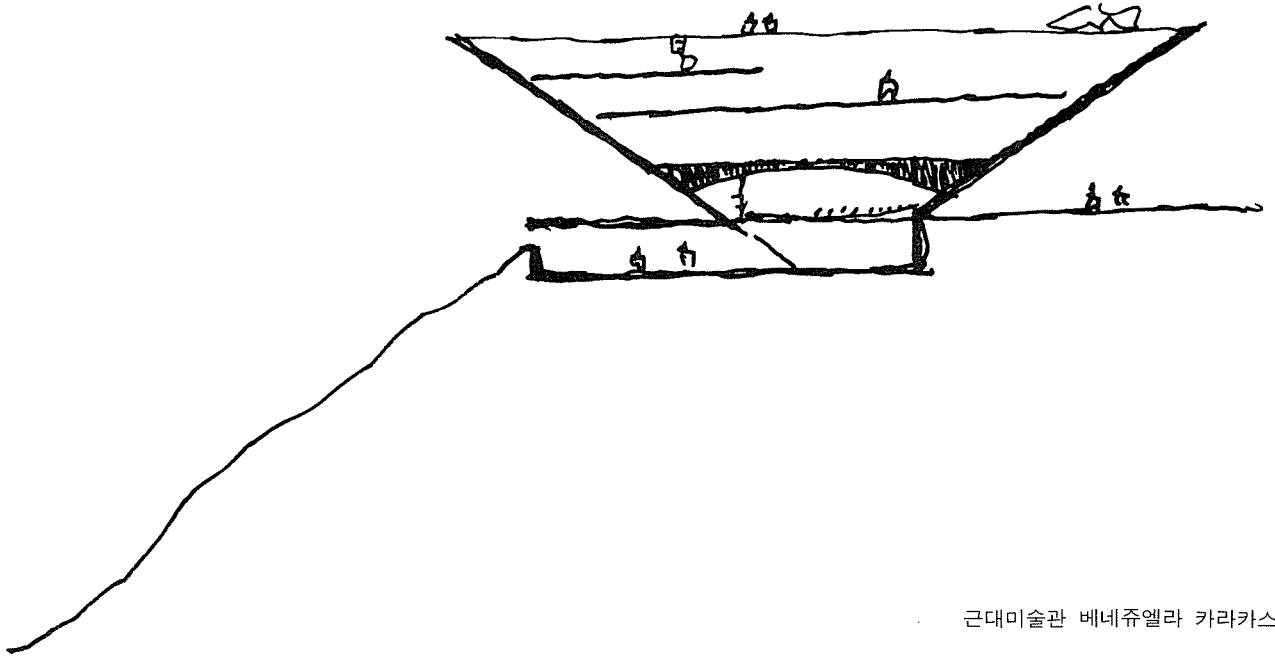
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브라지리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우선 기하학이 느껴지는 형태라야 했다. 그것도 가장  
 原始的인 형태, 즉 直方體.  
 인간의 질서있는 生活空間을 象徵하기 위해서는  
 「피로티」로서 무질서한 宇宙—大地—에서 독립시킨다.  
 뿐만아니라 壁面은 모두 콘크리트로 감싸고 窓문을 뚫어  
 놓는다. 이렇게 질서있는 테두리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생활의 기능에 맞추어 내부공간을 구성한다.  
 이것이 「사보이」邸이다.  
 내부공간은 꼭 차있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큼직한  
 Ramp, Void, Open 테라스 등으로 자연에 대해 개방돼  
 있고 위 아래층으로 공간이 相通한다.  
 「말세이유」APT 에서는 더욱 힘찬 「피로티」, 옥상 부분의  
 강한 테두리로 말미암아 조형은 이것으로서 완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것은 하나의 빈틈없는 힘찬  
 結晶體이다.  
 그의 후기의 작품은 더욱 강한 조형을 보여준다.  
 「롱상」禮拜堂은 건축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자유스러운  
 형태의 거대한 彫刻이다.  
 「오스카 니마이어」의 브라지리아의 建築群도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우선 視覺적으로 강한 造形感을 느낀다. 그것은 원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쌍둥이탑처럼 선 사무실동, 넓게  
 깔려있는 基壇— 그 내부는 Public Space가 있다—  
 위에 놓여진 球의 일부를 잘라 낸 듯한 조형을 하나는  
 엮어 놓고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議事堂建物.  
 전자는 그 형태가 暗示하듯이 保守를, 후자는 革新을

象徵한다.  
 그멀리 여성적인 우아한 꿈의 宮殿 대통령 官邸가  
 바라 보인다.  
 넓은 壁판에 세워진 높은 것과 낮은 것, 직방체와  
 半球,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매우 고전적인 美의  
 方程式과 같은 것이다.  
 「오스카 니마이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미술관이  
 생각한다. 깎아세운 듯한 絶壁위에 「피라밀」을 거꾸로  
 세운 듯한 조형은 다이내미즘의 극치라 하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미술관으로서의 내부기능이 제대로 만족되어  
 있는지 의심이 간다.  
 北歐 出身의 「뷔리오 리벨」의 「토론토」 시청사는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당국에서  
 내세운 조건은 오래된 시의 이웃 환경과 조화되며 시의  
 심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작품을 원했는데 많은  
 응모작이 이웃과 어울리는 고전적인 조형이었는데 반해  
 「리벨」은 이웃과 대립되는 강하고 특출한 조형으로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스케치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듯이 충분한 넓이의  
 Public Space가 들어있는 基壇 위 한가운데 회의장이 떠  
 있는 듯이 놓여지고 이를 둘러 쌓듯이 주와 시, 두개의  
 「오피스빌딩」이 높이를 달리하면서 반달모양으로 서있다.  
 이 두개의 사무동의 가로에 면한 외부측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고 이와 반대로 내부로 면한 부분이 유리창으로  
 회의장은 그 성격을 표현하듯이 완전한 원형이다.  
 회의장을 보호하고 감싸는듯 안으로 열려있고 밖으로는  
 폐쇄된 강한 상징성을 느낀다.



근대미술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흔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단순하고 힘찬 조형이 많은 것은 이러한 작품이 이해되기 쉬워 심사위원에게 「어필」되며 象徴性이 강해 好感을 받기 때문이다. 「리드」라는 평론가는 현대건축은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건물인 시민회관, 시청사, 기념관, 공공건물의 웅장함, 華麗함, 자랑스러움을 바란다. 그것은 즉 내부기능은 둘째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힘찬 조형이어야 한다.

이상 건축의 본질을 그 내부공간에 두는 작가와 외부공간의 조형에 중점을 두는 작가의 계열로 나누어 보았다. 매우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前者는 有機的인 建築이고 後者는 機能主義 建築인 셈이다. 그러나 까다롭게 따져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류될 것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건축디자인의 첫시발점에서 내부공간이나 조형이나 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할 문제, 즉 그 건물이 놓여지는 환경이 특이해서 이에 더 중점을 둔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웃쎌」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항구라는 대지조건에 웃트리는 이미지를 부각한 경우이고, 「라이트」의 「마린」군정사는 그 내부공간은 별볼일 없고 차라리 골짜기에 놓여지는 조형으로 어떤 것이 어울리겠는가에 관심을 둔 작품이다. 「라이트」는 환경에 무리없이 調和시키는 작가이지만 그중에서도 「마린」군정사만큼 잘 처리된 경우는 드물다. 이웃의 언덕을 이용해 마치 골짜기에 다리를 놓듯이 건물이 사뿐히 앉혀지고 둥글게 건물을 감싸는 듯한

초가지붕같은 파란색의 지붕이 「캘리포니아」의 언제나 맑은 하늘과 숲과 더없이 좋은 조화를 이룬다. 그의 유명한 낙수장도 계곡을 흐르는 물과 숲속이라는 자연조건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뉴욕」의 「굳센하임」 미술관은 언젠가는 재개발될 허름한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차라리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도시 한복판 보다는 공원 한모퉁이에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르 코르뷔지에」의 「사보이」邸는 외부의 조형이 돌보여 내부공간을 잊기 쉽지만 흐트는 공간이 변화있는 멋있는 분위기이다. 그가 젊었을 때 즐겨 그렸던 「퓨리즘」의 그림, 투명한 유리컵과 병들이 열키고 설키고 「오파렛」 하는 처럼 공간이 서로 열키면서 인간의 심층심리를 엿보이는 듯하다.

近代建築의 세 사람의 巨匠이라면 누구든 서슴치 않고 「르코르뷔지에」와 「라이트」와 그리고 「미스 환델 로」를 들것이다. 그러나 「미스」는 현대건축에 특히 미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철학은 애매모호하여 쉽게 수궁이 가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Universal Space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융통성 있는 공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건축이란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존재이유로부터 따져 나간다면 융통성있는 공간이란 손쉽게 말하자면 어른도 어린애들도 입을 수 있는 옷 따위가 되어 누구에게도 맞지않는 옷이 되어 버린다.



Alvar Aalto

「Less is More.」 또한 말하자면 적은 것이 장땡이다 라는 뜻인데 무엇인가 너무 깊은 철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알듯 모를 듯하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인 「발세로나 미술관」이나 「레이크쇼 드라이브 아파트」 등 그의 작품에서 살펴보면 두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건축공간의 구성요소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기둥, 보, 유리창, 바닥, 벽, 천정 등 이 이상 단순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 시켜 나간 작품들이다. 뿔뿔이 만치 꼭 같은 디테일—그러나 매우 세련돼 있다—로 건축을 감싼다. 피아노의 건반은 기본적으로는 12개의 음階를 가지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져 온다. 名曲이나 拙作이라는 오직 작곡가에게 달려 있다. 「미스」의 작품도 이와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둘째로 그가 말한 「유니버설 스페이스」란 사무소나 학교 미술관 등 어느 기능에도 맞는 공간이란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각하는 순수한 건축공간—비례, 조화, 미 따위를 위한 공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禁慾的인 淸教徒的인 것, 「앙드레 지드」의 문학같은 것. 「미스」에게는 순수한 공간이야말로 건축의 본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가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와 같은 것이다 하여 모든 건축가가 자기 과거의 작품을 부정하고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 준다. 뛰어난 건축가일수록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그러나 「미스」는 이점에서도 특이한 작가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의 작품은 변하지 않고 그가 추구해온 순수공간의 비례와 조화와 디테일을 다듬고 다듬어 왔다. 말하자면 같은 「테제」를 깊이 좁더 깊이 좁더 순수하게 추구한 작가였다.

이제 이 거장들이 돌아가신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많은 유산들을 남겨 놓았다.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많은 「샘플」을 남겨 놓았다. 그 선배들의 발자취, 探求의 정신을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공간, 시간, 건축의 저자 「G.기디온」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는 많은 Play Boy 건축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여자 저 여자로 옮겨가면서 채신머리 없이 떠돌아 다니는 「플레이 보이」처럼 잡지에서 소개되는 유행을 따라 차분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는 건축들이 범람한다는 이야기 이다. 우리현실은 어떤지? 다음호에는 계속해서 건물의 평면을 안에서 부터 밖으로 종합, 전개해 나가는 「알발·알토」의 방법과 이와반대로 전체에서부터 내부공간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르 코르뷔지에」의 어프로우치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